

잡아함 98. 경전경

날짜: 6월 14th, 2024

출처: <http://www.dhamma.kr/wp/?p=17727>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코살라에 계시면서 세간에 노닐으시다가 이카나알라촌에 이르러 이카나알라 숲에 계시었다. 그 때에 세존께서는 가사를 입고 바루를 가지고 이카나알라촌에 들어가 걸식하시다가 ‘오늘은 너무 이르다. 우선 카시바라드봐자 바라문의 음식 만드는 곳을 거쳐 가 보자’고 생각 하시었다. 그 때에 카시바라드봐자 바라문은 오백 명이 보습으로 밭을 갈고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 때에 카시바라드봐자 바라문은 멀리서 세존을 보고 여쭈었다.

“고오타마시여, 나는 지금 밭을 갈고 종자를 뿌려 그것으로 먹고 살아가나이다. 사문 고오타마께서도 또한 밭을 갈고 종자를 뿌려 그것으로 자시고 살아가셔야 하나이다.”

부처님께서는 바라문에게 말씀하시었다.

“나도 또한 밭을 갈고 종자를 뿌려 그것을 먹고 살아가느니라.”

“나는 사문 고오타마님의 보습도 명에도 묵사리도 고삐도 호미도 채찍도 전연 본 일이 없나이다. 그런데 사문 고오타마께서는 ‘나도 또한 밭을 갈고 종자를 뿌려 그것으로 먹고 살아간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때에 카시바라드봐자 바라문 곧 게송으로 말하였다.

스스로 밭을 간다 말하지마는

그 밭을 가는 것 보지 못했네.

나를 위해 밭 가는 것을 설명하여

밭 가는 법을 알게 하여라.

그 때에 세존께서도 게송으로 대답하시었다.

믿는 마음을 종자로 삼고
괴로이 행하는 것 비(雨)로 삼으며
지혜를 보습의 자루로 삼고
부끄러워하는 마음 멍에로 삼아
바른 생각으로 스스로 보호하면
그는 좋은 어자(御者)라 이름하나니

몸과 입의 업을 잘 단속하고
음식 종류를 알아 알맞게 먹고
진실을 진정한 수레로 삼고
즐거이 머무르되 게으르지 않으며

꾸준히 나아가 거칠음 없게 하며
안온하면서 빨리 나아가
한 곳으로 바로 달려 돌지 않아서
근심이 없는 곳에 이르게 되네.

이러한 농부는 감로 열매
빨리 얻게 되고
이러한 농부는 모든 존재를 받지 않네.

때에 카시바라드봐자 바라문은 게송을 듣고 나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밭을 잘 가십니다! 고오타마시여, 참으로 잘 밭을 가십니다! 고오타마시
여”

이에 카시바라드봐자 바라문은 세존의 게송을 듣고 마음에 더욱 믿음을
더해 맛난 음식을 한 바루 가득 담아 세존께 바치었으나 세존께서는 그것
을 받지 않으시었다. 그것은 게송을 인연하여 얻은 것이기 때문이었다. 부
처님께서는 곧 게송으로써 말씀하시었다.

설법으로 말미암아 얻었기 때문에
나는 그 음식을 받아 먹지 않노라.

(이리하여 널리 말씀하신 것은 앞의 (93경)불을 섬기는 바라문을 위하
여 말씀하신 것과 같다.) 때에 카시바라드봐자 바라문은 부처님께 여쭈었
다.

“그러면 이제 이 음식을 어디다 두어야 하리이까.”

“나는 아직 모든 하늘이나, 악마·범·사문·바라문·하늘신·세상 사람으로서 이 음식을 먹고 몸이 편하게 된 것을 보지 못하였다. 바라문이여, 너는 이 음식을 가져다 벌레가 없는 물 속이나 풀이 적은 곳에 버려라.”

때에 바라문은 곧 그 음식을 가져다 벌레가 없는 물 속에 넣었다. 그러자 물은곧 연기를 일으키고 부글부글 끓어 오르면서 피피 소리를 내는 것이 마치 뜨거운 쇠탄자를 찬 물에 던질 때에 나는 소리와 같았다. 그와 같이 그 음식을 벌레가 없는 물 속에 던질 때에 물은 연기를 일으키고 끓어오르면서 피피하고 소리를 내었다. 때에 바라문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사문 고 오타마는 참으로 기이하고 특별하시다. 그는 큰 덕이 있고 큰 힘이 있어 음식으로 하여금 신변을 부리게 하는 것이 이와 같구나’고. 때에 바라문은 그 음식의 상서로운 조화를 보고 믿는 마음이 더욱 더해 부처님께 여쭈었다.

“고오타마시여, 나도 이제 이 바른 법 안에서 집을 나와 구족계를 받을 수 있겠나이까.”

“너는 이제 이 바른 법 안에서 집을 나와 구족계를 받을 수 있고 비구의 신분을 얻을 수 있느니라.”

그는 곧 집을 나와 혼자서 고요히 족성자가 수염과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바른 믿음으로 집을 나와 집이 없이 도를 배워…내지 아라한이 되어 마음이 잘 해탈한 까닭’을 생각하였다.

본 문서는 dhamma.kr에서 수집한 내용입니다.